지난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와 울산현대의 경기에서 전북현대 한교원이 골을 성공시키고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싱겁게 끝날거라고? 천만에'

전북-울산, 우승경쟁 재점화

전북 현대, K리그1 21라운드
울산 현대전서 2-1로 승리로
K리그 첫 4연패 가능성 커져
정상 노리는 울산도 만만치 않아

싱겁게 끝날 것처럼 보였던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우승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북 현대는 지난 1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울산 현대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21라운드에서 바로우와 한교원의 연속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최근 세 경기에서 1무2패로 주춤했던 전북(14승3무4패 승점 45)은 4경기 만에 승리하며 울산(승점 47)과의 승점 차를 2로 좁혔다.

최대 승점 차가 8까지 벌어질 수 있었던 고비에서 전북은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다시 한 번 울산을 잡았다. 전북은 지난 6월 첫 대결에서도 2-0으로 승리했다.

울산 입장에선 우승 굳히기에 돌입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렸다. 8승3무로 11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전북의 벽은 높았다.

이겼다면 승점 차가 8로 크게 벌어져 울산의 전력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상 등극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2라운드까지 정규 라운드를 마치면 이후 팀당 5경기를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를 갖는다. 그룹A(1~6위)에 속하는 울산과 전북은 한 차례 더 대결해야 한다.

두 팀이 남은 경기에서 같은 승점을 쌓는다고 가정하면 두 팀의 마지막 승부를 통해 우승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

지난해 데자뷔가 일어날까.

사상 첫 K리그 4연패를 노리는 전북은 '어게인 2019'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울산에 지난해는 악몽이나 다름없다.

선두에 있던 울산이 최종 라운드에서 전북에 역전 우승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승점이 나란히 79로 같아 다득점에서 갈렸다.

전북이 72골, 울산이 71골로 전북은 한 골 차로 극적인 3연패를 달성했다.

전북은 지난달 말 국가대표 풀백 김진수가 알 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해 전력 누수가 상당했다. 선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축 선수의 이탈이 주는 전력 공백만큼 아쉬움이 매우 컸다.

이적 이후 3경기에서 1무2패로 하락세를 그렸지만 가장 중요한 일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울산을 압박함과 동시에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올해 울산과 두 차례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파이널 라운드에서의 자신감도 한층 단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득점 1위 주니오를 벤치에서 대기시키고, 원두재를 스리백의 가운데에 배치하는 등의 변화를 줬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전북을 만나기 전,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친 장면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승점 차를 더 벌리지 못해 전북에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울산은 오는 20일 정규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최하위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전북은 같은날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한다.

K리그 사상 첫 4연패에 도전하는 전북과 15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겠다는 울산의 우승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

/뉴시스

KBO 신인 드래프트 '비대면으로'

21일 1~10라운드로 진행
올해 대상자는 총 1133명
MBC SPORTS+ 등서 생중계

KBO(총재 정운찬)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KBO 신인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되며, 지명 순서는 2019년 팀 순위의 역순인 롯데-한화-삼성-KIA-KT-NC-LG-SK-키움-두산 순으로 실시된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856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9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133명이다.

이 중 라운드 별로 구단 당 1명, 모두 100명의 선수들이 KBO 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아쉽게도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수의 구단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 운영 인력으로만 진행된다.

지명 대상 선수 및 가족들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며, 미디어의 현장 취재와 야구팬들의 관람도 불가하다.

선수 지명은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 명단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1 KBO 신인 드래프트는 스포츠 채널 MBC SPORTS+와 유무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생중계 된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홈페이지 새단장한다

역동적 정체성 반영된 디자인 접목, 이용자 편의성 높이기 위해
리뉴얼 용역 입찰 참가 업체 평가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체육 · 시각디자인 · IT 분야 등 23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홈페이지를 새단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역동적인 도 체육회의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을 접목,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도 체육회는 '전북도체육회 홈페이지 리뉴얼 용역'을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며, 입찰 참가 업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모집한다.

공고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접수기간은 23일부터 29일까지다.

모집분야는 체육, 시각·산업디자인, IT, 홍보 등이다.

지원자는 등록신청서 등 도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방문(전북체육회 총무회계과) 또는 이메일(sds4968@jbsports.or.kr)로 하면 된다.

한편 도 체육회는 각 단체별에서 추천받은 대상과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 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프로축구연맹 박성균 팀장, AFC 클럽라이센싱 TF팀 부의장 선임

프로축구연맹은 16일 "박성균 연맹 팀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라이센싱 태스크포스(TF)팀 부의장으로 선임됐다"고 전했다.

AFC 집행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의 AFC 클럽라이센싱 TF팀에 대한 심의를 통해 AFC 챔피언스리그와 AFC컵에 참가중인 국가의 클럽라이센싱 담당자 가운데 9명을 선발했다.

의장은 아랍에미리트(UAE)의 하마드 모하메드 알즈네이비이며, 부의장에 박 팀장이 선임됐다.

박 팀장은 현재 연맹에서 경영기획팀과 구단지원팀 팀장을 겸임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AFC 경기 감독관으로도 활동 중이다.

TF팀의 임기는 4년이다. 국가별 AFC 클럽라이센싱 시행 준수 여부 모니터링, 규정 리뷰 및 개정 건의, 규정 개정시 국가별 상황 파악 및 의견 개진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비대면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뉴시스